

나주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으로 결식 우려 아동 지원

행복나래·행복도시락협동조합과 손잡고 '결식 제로(Zero)' 실현 추진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결식 우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민관 협력 사업인 '행복두끼 프로젝트' 추진에 나섰다.

나주시는 6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행복나래,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결식 우려 아동의 안정적인 식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조민영 행복나래(주) 본부장, 최준행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나주시가 결식 위기에 놓인 아동 약 40명을 발굴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지자체 급식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마련하

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나주시는 지원 대상자 발굴과 사후 지원, 행복나래는 사업비 및 기부물품 마련과 복지 홍보,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락 제조·배송 및 식단 관리 등 실질적인 급식 지원을 맡게 된다.

특히 행복나래는 SK가 설립한 구매서비스 회사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의 전액을 사용하며 '행복얼라이언스'의 사무국으로 전국 120여 개 기업과 144개 지자체, 52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결식 제로(Zero)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은 공공급식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나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나주시는 6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행복나래(주),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최준행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윤병태 나주시장, 조민영 행복나래(주)본부장, 사진제공-나주시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작은 밥상에서 시작되는 큰 행복을 만드는 일"이라며 "아이들이 끼니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나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양경자청, 관광·레저 전문가그룹 간담회 개최

여수 화양지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협의

광양민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종근, 이하 광양경자청)은 7일 여수 HI디오션리조트에서 관광·레저 분야의 투자 활성화와 여수 화양지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그룹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광·레저 분야 전문위원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도 광양민권의 관광산업 투자유치 전략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윤영 실장, 코트라 추은철 위원, BIEK 국제학교설립추진단 석인영 고문 등 전문가와 HI디오션리조트 이준영 부사장, 심우성 이사, 광양경자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관광·레저산업의 최신 동향,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 남해안 관광벨트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화양지구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숙박·테마형 복합 시설을 조화롭게 도입하고, 민간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화양지구 사업시행자인 HI디오션리조트 측은 개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김자진 광양경자청 투자유치본부장은 "관광수요를 면밀히 반영한 맞춤형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토대로 내년도 관광·레저 분야 투자전략을 구체화하고, 국내외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진도군 최유림 희망복지팀장, '제49회 청백봉사상' 본상 수상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이웃사랑 실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

진도군은 주민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최유림 희망복지팀장이 지난 11월 3일에 행정안전부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제이티비씨(JTBC)와 엔에이치(NH)협회가 후원하는 '제49회 청백봉사상' 본상을 받았다.

1977년에 제정된 '청백봉사상'은 청렴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주민을 위해 헌신한 모범 공직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며, 공개검증과 합동조사단의 현지 확인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최유림 팀장은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공공복지뿐 아니라 민간 자원도 합

계 연계해 취약계층의 삶을 세심하게 돌본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겨울철 복지위기가구를 신속히 찾아내고 지원함으로써 진도군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지원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데 이바지했으며, 안면 장애로 어려움을 겪던 주민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년 동안 지역 사회복지 시설 10곳에 1,350만 원을 기부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

최유림 팀장은 "공직자로서 가장 영예로운 상을 받아 감사하고 영광으로 여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따



뜻한 복지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김희수 진도군수는 "최유림 팀장의 청백봉사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빛나는 모범 공직자로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함평군 함평읍, 어르신 활력 증진 '국향대전' 나들이 성료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어르신, 웃음꽃 만개

전남 함평군 함평읍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심한 복지 행정을 실천하며 주목받고 있다.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7일 '함평읍이 지난 5일, 2025년도 노인·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관람 나들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문화 프

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어르신들은 국화꽃이 만개한 축제장을 둘러보며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또한, 이날 나들이에 앞서 동절기 안전 교육을 실시해 일자리 활동 시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축제 관람 후에는 전 군민 건강검진 대회에 함께 참여해 웃음과 대화가 넘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일자리 사업은 어



르신들의 사회 참여의 통로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어르신들이 스스로 보람을 느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춘 기자

담양군, 제29회 노인의 날 행사 성황리에 마무리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제29회 경로의 달을 맞아 '노인의 날' 행사를 12개 읍·면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9일 대덕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별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평생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의 날 행사는 행사추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 청년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각 읍·면 민간단체가 주관했으며,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지역 주민

간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효행자, 장한아버지, 모범노인, 선행자, 노인복지 기여자 등에 대한 표창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성스러운 음식과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마련돼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정철원 군수는 "오늘의 발전은 어르신들의 헌신과 지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2025 장성 조종방문의 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축령산 편백숲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

장성군 Jangseong